

'정치적 기본권 확대' 교사 92% 공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유초중고 교사 18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북지역 유초중고 교사 92.9%는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규범과 실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다.

정치적 기본권은 언론출판, 정치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와 선거권, 정당가입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현행 법률은 교원 등 공무원에 대해 중립성을 들어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전북 유초중고 교사 1,798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기본권 관련 이슈 등에 설

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9%가 기본권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매우 찬성 23.6%, 찬성하는 편 69.2%) 반대 의견은 5.9%에 불과했다. ▲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권 보장 당연(95.7%) ▲스스로 교육 자주성, 중립성 지키기 위해(90.7%) ▲교육현안 해결 및 발전 위해(88.6%) 순으로 기본권 확대 이유를 들었다.

또 응답자의 77.1%가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이 공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더라도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도 78.4%에 달했다.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교직사회가

관심이 높은 것도 확인됐다. 63.6%는 평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 선거활동 등)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다.

고등학교 교원(66.9%), 남성(74.4%), 50대 이상(69.2%), 교감·교장(73.5%)에서 특히 관심수준이 높았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사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는 ▲단연한 권리로 참여하고 싶다(68.3%) ▲그릴 수 있지만 동참하고 싶은 생각 없다(27.5%) ▲부적절한 행위(1.2%) 순으로 나와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계층별로 세분화 해 보면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원

(75.7%), 교원단체 별로는 전교조 가입 교원(88.9%)에서 높게 나왔다.

이와함께 정치적 기본권 주요 내용별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사국선언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찬성(90.8%) ▲지지는는 정치인 후원 찬성(81.6%) ▲자유로운 선거 출마 찬성(65.6%) ▲특정정당에 가입 찬성(61.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있지 않는 사회 현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계기교육에 대해 94%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실제 계기교육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6.8%로 나왔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2%로 많았다.

연구보고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절대다수 교원이 정치적 기본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윤정수)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진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선정해 인증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교육기부로부터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받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학부모 대상 홍보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관련 개발과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풍부한 인·물적 자원을 활용해 자유학기제 활동 지원을 통한 학교교육 과정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진로체험 활동 등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의 자유학기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원은 10개 진로체험 과정을 비롯해 진로특강 등을 마련, 향후 전북지역 신청 학교들과 MOU를 체결하고 전북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교육원에 개설돼 있는 교양과정 등 160여 개 과정도 활용해 지역 청소년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방침이다.

윤정수 원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전북대 평생교육원이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우리 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도교육청 신임 부교육감에 황홍규씨 부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황홍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55·사진)이 부임했다.

황홍규 부교육감은 김제출신으로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 행정학과와 법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행정고시 27회 합격해 광

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사계장, 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 전북대 사무국장,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을 지냈다.

2014년 12월부터 광주광역시 부교육감을 지냈으며 2018년 1월 8일부터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았다. /김민근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8일 오전 전주중학교체육교육원을 방문해 목동아이스링크 대회에 참가하는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을 만나 격려한 가운데 참가선수들과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계체육대회 전북선수단 응원합니다" | 김승환 교육감, 전주중산초 방문 "기량 발휘해 목표 이루길" 격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8일 오전 전주중산초를 방문, 동계체육대회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환 도교육감은 "전북도를 대표해 참가하는 선수들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주중산초 아이스하키팀(선수 22명)은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학생 선수단은 1월 6일부터 24일까지 경기, 서울, 강원, 충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전북 선수단은 예선대회를 거쳐 대표로 뽑힌 초·중·고등학생 153명과 임원 50명 등 총 203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한편, 전북 학생 대표 선수들은 지난해 열린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5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2개 등 총 39개의 메달을 획득해 전라북도가 19년 연속 종합 4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올해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예년과는 달리 종합 순위를 매기지 않고 종목별 순위만 결정하며, 개·폐회식도 따로 열리지 않는다.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정식 5종목과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아이스클라이밍) 등 시범 2종목에서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각각 메달을 가린다. /김민근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